

광산구, 학교 주차장 활용 '공유주차' 공간 확보 나선다

도심 주차난 해소 상생 해법 마련 야간 개방 추진...안전관리 우려도

광주 광산구가 극심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과 학교 간 주차 공간 공유 등 상생 해법 마련에 나섰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2024년 가담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정책은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었다.

광산구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주차 공급면은 17만 2777면이며 주간 주차 수요는 14만 8748면, 야간 수요는 16만 2343면이었다. 주·야간 모두 전체 주차공급 면이 수요면 보다 많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산구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이 주차 공간 다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주차 공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2020년부터 다양한 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류시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에 5000만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2개 시설 443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주차장 1면을 새롭게 확보하는 데 1억원이 넘게 드는 것을 고려하면, 주차장 공유의 '가성비'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게 광산구의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학교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걸들고 있다. 광산구는 학교측에 수업이 없는 야간, 저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세영리첼애플파트가 내부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녁 시간대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공유 사례는 전무하다.

지역 내에선 "학교도 적극적으로 주차장 공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운지구의 한 학부모는 "지역주민도 학부모이자 학교 구성원이고,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등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학교가 가능하다면 주민에게 주차장과 시설을 개방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나서 공유주차장의 취지를 일선 학교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산구는 일단 양방향 소통을 통해 주민 요구와 학교 측 우려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의 개별

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학교의 주차장 공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측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된 차량에 한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익일 등교 시간까지 출차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이후 이용을 제한해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학교 공유주차장 운영 방침도 마련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주차장 개방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공유주차장 참여를 유도하겠다"면서 "주민의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으로 마을과 학교의 상생 협력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살기 좋고 매력 있는 우리 동네 만들기'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제1회 광산마을학당' 개최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센터장 이민철)는 "지난 23일 광산구청 7층 운상원 홀에서 '제1회 광산마을학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산마을학당은 '살기 좋고 매력 있는 우리 동네 만들기'를 주제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활용해 '주민에게는 살만한 지역, 외지에서는 가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로컬브랜딩에 대해 공익마케팅팀을 오승훈대표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했다.

로컬브랜딩은 지역구원이 중심이 돼 지역 내에 숨어 있는 매력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강화해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다.

이날 강연은 일본 도쿄 도시마구 등 마을 만

들기 사례와 국내 로컬브랜딩 사례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특히 올해 광산구 21개동이 동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주민과 행정의 많은 관심 속에서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광산마을학당'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의 다양한 이슈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배움의 장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산구자원봉사센터,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광산마을지원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며,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시민이 이끄는 일자리 혁신 '청사진' 나왔다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연구용역 보고회...4개 분야 100인 발굴단 모집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광산구 일자리 혁신 실험의 구체적 윤곽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구청 7층 운상원 홀에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 이번 연구용역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에 참여한 시민,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자문위원, 관계 기관, 광산구 노사민정 위원, 지속가능 일자리 관련 협업부서 등이 참석했다.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다. 수행 기관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채준호 교수)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와 노인일자리, 교육, 제조업 등 일자리 이해관계자 23명 초청-집담면접을 진행해 광산구 산업환경과 노동환경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성과 개혁모델을 도출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종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복

합적 위기와 위협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고용 없는 성장" 등 일자리의 위기야말로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되고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협력단은 "현시대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광산구는 기존 광주형일자리보다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광산구의 모든 기업, 모든 업종으로 적용해 확산할 수 있는 특구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광산형 사회적 대화 체계 설계였는데, 산학협력단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산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일자리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나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까지 소외된 작고 낮은 목소리까지 답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광산시민 지속가능 일자리 대

토론회 '시민사담(市門市答)'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제조업, 민간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마을 등 4개 분야 일자리 관련 100인의 '지속가능 일자리 발굴단'을 모집하고,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민이 묻고 시민이 답한다'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지속가능 일자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광산구는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와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의 고통, 고령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은 좋은 일자리이며, 이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 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과의 합의"라면서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광산이 가장 먼저 시작한 새로운 일자리 혁신 실험을 꼭 성공시켜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다누리' 복합청사로 이전

광주 광산구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29일부터 '송정다누리' 복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합청사 '송정다누리'에는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작은도서관과 가족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개청식은 5월 7일 열린다. 그동안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민간 사무실을 임대 사용해 왔다. '송정다누리'는 생활 기반 시설(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추진돼 지난 3월 준공됐다. 연면적 5228㎡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다. 기존 행정사무 위주 대민 서비스 공간에 문화·체육공간을 더해 지역 주민의 소통과 교류 등 다양한 활동도 지원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복돋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연극·국악 등 공연

광주 광산구가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선보인다. 광산구는 "공연예술 분야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대표 거점 문화공간인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뮤지컬, 국악, 퓨전

타악 등 다양한 장르의 6편의 공연을 진행한다. 6월 타악 그룹 얼슈 퓨전타악 '락의로'를 시작으로, 7월 연극 '패스(pass)', 8월 국악 '닭들의 꿈', 9월 타악 그룹 얼슈 초연 창작 공연 '저승에서 살아온 자', 11월 뮤지컬 '구구', 12월 퓨전국악뮤지컬 '심청날다' 등이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추후 광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함께하는 100년 동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NH 국민은행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